

4/7(목) 왕상 9-11장 적신호

솔로몬 왕국은 최대치의 번영과 명성을 누렸습니다(10:23).

그러나 하나님은 화려한 솔로몬 치세에 적신호를 켜십니다(9:1-9).

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한 것 이상의 복을 주셨습니다(3:13 참고).

솔로몬의 지혜는 경제적인 방면에서도 탁월했습니다(9:10-14, 10:28-29).

국방을 위한 방어체제 구축과 관련 건축에도 힘썼습니다(9:19, 9:20-21).

국제적 명성(10:6-7), 엄청난 세입금(10:14), 전무후무한 규모의 부(10:10, 12, 21, 27),

왕궁과 보좌, 기물들의 위용(10:16-17, 18-20), 마병과 병거(10:26),

국제적 교류와 무역(10:22),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.

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(11:33).

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신을 왕궁에 들였습니다(3:1, 9:24, 11:1).

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<작은 아이> 솔로몬은(3:6-9),

자기 보좌의 위용을 자랑하며(10:18-20) 우상의 산당들을 건축합니다(11:7-8).

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던 솔로몬은(3:3),

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습니다(11:9-10).

성경은 계속하여 안타까움과 탄식을 표합니다(11:4, 6, 9, 33).

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<세상 왕도>를 걸었습니다(신17:16-17, 10:14-29).

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불순종의 저주가 이스라엘에 발효되었습니다.

대적자들이 일어나고(11:14-40), 분열의 그림자가 왕국에 드리웁니다(11:11-13, 35-36).

나의 삶에 켜진 영적 적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까?

❶ 물질적으로 번성하나 영적으로 빈궁하며 험벗고 있지 않습니까?

❷ <나의 보좌>를 높이 올리고 어느새 <세상의 도>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왕상 9-11장